

美國 資料에 나타난 韓人 <從軍慰安婦>의 考察



方 善 柱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1264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066
5401

.00012643

900

美國 資料에 나타난 韓人 <從軍慰安婦>의 考察

方 善 柱*

- | | |
|----------------------------|---------------------------------|
| I. 머리 말 | V. 버마 前線에서의 한인 중군위안부 |
| II. 언더우드 선교사의 보고 | VII. 무선암호에 나타난 내몽고주둔군의 위안부 수입요청 |
| III. 일본포로 송환자 명단의 검토 | VIII. 日本軍에서의 慰樂諸像 |
| IV. 姉妹慰安婦의 경우 | K. 총 결 |
| V. 트루크 環礁에서의 한인 위안부 집단 학살설 | |

I. 머리 말

“나찌스의 蠻行에 관한 모든 過去史를 현재에 이르러서는 파묻어 버리고 忘却해 버리는 것이 낫다는 널리 퍼져있는 사고경향이 비단 독일과 오스트리아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Wiesenthal씨는 和解한다는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의 지식을 기초로 한 후에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Mr. Wiesenthal feels that reconciliation is only possible on the basis of knowledge of what happened). 이것은 Wechsberg가 편집한 나찌 만행자료사냥꾼 Wiesenthal의 공작과 일화에 관한 책 《우리 주위의 살인자들》을 평한 Times Literary Supplement가 Wiesenthal의 발언을 간결 적절히 요약한 구절이다.¹⁾ Wechsberg는 태평양전쟁시기에 한인독립운동에 관한 글을 썼고 그 중에서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중국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소개한 사람이었다.²⁾ 일본인의 글들을 보면 한국인은 너무나 過去史에 집착한다고 쓴 기사들을 더러 보는데³⁾ 사실은

* 재미사학자.

- 1) Simon Wiesenthal, 《The Murderers Among us》(Edited by Joseph Wechsberg, New York-London, 1967)을 평한 <Times Literary Supplement>(June 8, 1967)의 ‘Searcher for Guilty Men’ 참조.
- 2) ‘The World’s Deadliest Terrorist’ <Science Digest>(1943년 9월호) 참조.
- 3) 特定논설을 거명할 필요가 없어 생략하지만 한국에 파견나온 특파원들의 기사 특히 <우시오>(潮)에 가끔 나오는 것들을 들 수 있다.